

하는 침엽수림의 상황전개는, 미래에 이 지역의 침엽수재 공급이 충분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열대 활엽수 벌채 수확을 감소시키려는 압력은 침엽수로의 잠재적인 대체와 그에 따른 침엽수재 수요의 증가를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증가일로에 있는 경영의 제약요인에 비추어 전래적인 환태평양 지역내 생산국의 공급실태를 재조명한다. 그리고 소련 극동지역, 칠레, 뉴질랜드, 중국으로 부터의 새로운 침엽수 공급 잠재력이 재조명된다. 최종적으로 환태평양 지역 침엽수림의 잠재력이 평가된다.

생산물 대체 및 무역장벽을 포함하는 침엽수 용재 및 가공용 목재 원자재(제재목, 합판)의 미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은 금세기 잔여기간에 걸쳐 환태평양 지역내 침엽수 생산 및 무역의 패턴을 결정짓는데 있어 긴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동 지역내 현재 그리고 기대되는 역동적인 상황에 비추어, 침엽수 목재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이 재조명된다.

미국의 활엽수 자원과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급전망

W. Ramsay Smith and Fredrik N. Stureson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애펠레치아 활엽수재수출센터

미국은 천혜의 풍부한 활엽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국가 성장에 공여하기 위하여 금세기에 접어들 무렵

대량 벌채되었다. 적절한 산림경영기 법을 통하여, 이러한 활엽수림은 장기적으로 고품위의 보속적인 자원을 공급할만큼 풍부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현재 생산량은 평균벌채량의 2.5배를 능가하고 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지난 35년에 걸쳐 모든 직경급에서 55%내지 80%만큼 목재공급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총 85억 m³의 활엽수 임목축적이 미국대륙 내에 부존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 대부분은 중북부지역(30%)에 이어져 중남부(24%), 동북부(22%), 남동부(22%), 및 서부(2%)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수종별로는 지역마다 다르나, 레드 그리고 화이트 오크류가 우점종이다. 또한 툼나무, 단풍나무, 히코리나무 및 소합향나무도 풍부히 부존되어 있다. 또한 서양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참피나무, 흑벚나무 및 흑호도나무 그리고 외국시장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양한 수종들도 충분히 보존되어 있다.

모든 제재용재의 약 1/3은 고품질의 1, 2 등급에 포함된다. 2/3는 비교적 더 천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급질의 원목인 3, 4 등급에 포함된다. 현재 이러한 원목들과 비교적 덜 알려진 수종들로부터 결과된 저등급 목재를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목재의 이용은 양질의 산림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미국의 활엽수재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활엽수재 수출은 1990년에 총 15억\$에 도달함으로써 지난 5년간의 배이상이나 되었다. 활엽수재 수출은 1991년 초반기 동안 이미 821백만\$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이 가운데 제재목 수출은 52%, 원목 18%, 단판 13%, 칠 11%, 합판 3%,

및 마루판 2%를 차지하였다. 환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미국의 활엽수재 수출은 1991년 초반기동안 총 수출량의 30%(247백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주요 수입국가로는 일본, 대만 및 한국을 들 수 있다. 제재목은 금액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이 가장 많이 수입한 반면에, 원목은 한국이 가장 많았다. 총수출액 기준으로 원목과 제재목 다음으로 단판과 칠이 뒤를 따른다. 원목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제재목은 싱가포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활엽수 자원은 매우 잘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속적 수확기초위에서 경영되고 있다.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활엽수재 수출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데, 미국생산자들은 시장에 관한 지식을 점차 늘려가고 있거니와, 환태평양의 목재가공산업은 미국산 활엽수종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수입 침엽수재의 시장 구조와 경쟁력

김 외 정 / 산림청 임업연구원

열 대림의 보호는 열대 활엽수재 공급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침엽수 자원은 목재안보에 있어 그 중요성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산 침엽수 원목은 가격안정 및 수출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을 논외로 할 경우, 전반적인 수입여건상 한국의 침엽수 원목

수입상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수종이 되었다. 한국시장에 있어 태평양 북서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출량 감소는 즉각적으로 뉴질랜드 및 칠레 임목지의 라디에타소나무로 보충되었다. 시베리아산 목재는 건설구조재, 침엽수 합판 및 침엽수 가구의 사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목재시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급격한 노임상승과 관세율 인하는 건설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제재목 수입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제재목 시장에서 건조되지 않은 제재목은 라디에타소나무 원목을 가공한 생산물이 유리한 반면, 건조된 제재목은 미국산 침엽수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이는 라디에타소나무는 한국에서 버팀목과 콘크리트 형틀과 같이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시공제재목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있는 반면, 미국산 침엽수 제재목은 목재틀이 들어가는 주택이 도입되는 경우 2'×4' 틀기둥에 대해서 비교우위의 시장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 보드공장의 새로운 생산능력에 상당하는 원자재가 부족한 실정은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미국, 뉴질랜드 및 칠레와 같이 한국에 원목을 수출하는 주요국가들은 한국시장에 있어, 보드류 생산품에 대하여 무역집약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관세가 계획대로 1994년까지 8%선으로 감소된다면, 포르투갈, 보라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과 같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망한 한국의 보드류 시장을 잠식하는데 있어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